

파이어캡 “화재 감지하면 캡슐 터져 즉시 진화”

오픈주기

무전원 방식, 전력 차단돼도 작동 공간 형태 상관없이 설치 가능

모든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 위험은 큰데 인적이 드문 곳은 더 그렇다. 파이어캡은 이런 곳에 사용하기 좋은 소화용구 전문 제조기업이다. 소화용구 내 마이크로캡슐이 발화열에 반응해 터지며 내부 소화약제가 분출돼 화재를 진압하는 원리다. 무전원 방식이라 화재에 따른 전력 차단 같은 상황에서도 오작동 우려가 없다. 이철열 파이어캡 대표(사진)는 “자동소화페치가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즉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한다”며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위치에 부착하면 화재를 초기 진화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한 건물 배전반에 파이어캡의 붉은색 자동확산소화기(파이어엔젤)가 설치돼 있다. 파이어캡 제공

파이어캡은 이 대표가 2018년 4월 창업했다. 자동소화페치, 자동확산소화기(파이어엔젤), 에어졸식 소화용구 등 다양한 형태의 온도 반응형 소화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모든 제품의 기초가 되는 자동소화페치는 무게가 40g에 불과하고 두께가 1mm로 부피가 작다. 연성도 좋아 주걱 및 사무 공간, 공장 등 산업시설에 공간의 형태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다. 청정 소화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화재 예방 콘센트 정리함인 유니박스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제품이다. 중형은 1-4구, 대형은 1-6구용으로 먼지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화재도 예방해준다. 덮개 내부의 빨강 소화페치가 담은 마이크로캡슐이 온도에 반응하며 작동해 화재를 진압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콘센트 6구가 동시에 불이 나도 6초 이내에 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밑부분은 통풍이 잘 되게 설계해 콘센트가 과열되지 않게 돕는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소방 제품은 관련 공인기관에서 성능 인증을 받았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성적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든 공간의 소방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LS전선 ‘목재 드럼’ 재활용 플랫폼 만든다

(케이블 감는 부자재)

LS전선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목재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발표했다. 목재 드럼은 케이블을 돌돌 말아둘 수 있게 한 부자재다. 전선을 참고에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사용하며 보통 한 번 쓰고 폐기한다.

LS전선은 오는 9월부터 중고 목재 드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온드럼(ON DRUM)을 구축한다. 기업이나 기관이 케이블을 사용한 후 빈 드럼 정보를 올리면 수거 업체가 드럼을 수선하고 재포장해 케이블 생산업체에 공급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시범 참여한다. LS전선과 한수원은 지난 1일 경기 안양시 LS전선 본사에서 ‘ESG 경영 공동 실천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재 드럼 재활용 사업은 두 회사의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다. LS전선 관계자는 “케이블 부자재와 관련한 자원 순환 사업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허가는 깐깐, 임상은 지지부진 코로나 치료제 접는 ‘K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국내 제약·바이오회사들이 잇달아 중도 포기를 선언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도병)으로 전환하면서 환자 모집이 어려워진 데다 신속허가를 해주던 각종 허가당국의 승인 심사도 간간해졌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탈지노믹스와 종근당이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던 카모스타트의 임상 2상을 조기 종료했다.

카모스타트는 만성 췌장염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쓰이는 약이다. 약물 재창출 방식(기존에 사용되던 약의 용도를 바꿔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카모스타트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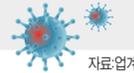
하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확산, 코로나19 백신 처방 확대 등으로 임상시험 환자 모집이 어려워졌다

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유통성 부족으로 투자 환경도 나빠진 실정”이라며 “췌장암 신약으로 개발 중인 아이발티노스타트의 임상 2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종근당도 중증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의 임상 3상을 중단한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종근당은 애초 러시아·우크라이나 등에서 임상을 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전쟁이 터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임상 제약	임상 3상 투약 완료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 보류
대웅 제약	중증 환자 대상 임상 3상 진행
신용 제약	임상 3상 진행, 해외 임상 지연
셀트리온 종근당 등	개발 중단



자료업계

임상 환자 안 모이고, 사업성 ‘뚝’ 지난달 셀트리온 임상 중단 이어 크리스탈지노믹스·종근당도 포기

면서 임상 규모를 줄이고 국내에서 먼저 허가했다. 이마저도 환자 모집이 어려워 개발을 포기했다.

두 회사가 임상을 중단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포기한 국내 제약 및 바이오 회사는 일곱 곳으로 늘어났다. 셀트리온도 지난달 29일 흡입형 카테일 항체 치료제의 임상을 중단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국산 1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 개발에 성공했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렉키로나의 흡입형 제형에 새로운 후보 항체 CT-P63 물질을 더해 임상 3상을 하러다가 환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큐리언트도 올해 초 같은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하던 임상 2상을 중단했다. GC녹십자 일양약품 부광약품은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을 접었다.

다른 개발사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말 시오노기 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 사용승인을 보류했다. 허가당국은 조코바의 유효성·안전성 데이터에 대해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난 만큼 치료제를 긴급 승인해 사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약사분과회와 합동 심의를 열어 조코바의 긴급 사용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초 경증·중증증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임상 2상을 중단했다.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만 진행 중이다.

신용제약도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 3상 국가를 러시아에서 콜롬비아로 바꿨지만,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식약처 긴급승인과 같은 패스트 트랙 절차가 없어지는 것도 개발사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선아 기자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GYEONGJU

2022. 7.8(금) - 7.10(일)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

기념행사 | 개막식
폐막식

전시회 | 전시홍보관
상종관
체험존

부대행사 | 학술행사 & 정책설명회
지역연계 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문화관광 프로그램

온라인행사 | 소셜라이브
랜선투어
주요행사 생중계

2022 SOCIAL ECONOMY FAIR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

주최
기획재정부 | 경상북도 | 경주시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에너지산업부 | 중소기업진흥기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조달청 | 산업청

주관
경상북도지역추진위원회 |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주최
기획재정부 | 경상북도 | 경주시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에너지산업부 | 중소기업진흥기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조달청 | 산업청

주관
경상북도지역추진위원회 |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문의 : 054-771-5140
www.socialconomyfair.kr



LG전자, 청담소름서피아노 연주회 LG전자는 지난 1일 서울 청담동 시그니처치킨스위트 청담소름에서 피아니스트 이루마를 초청해 연주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프리미엄 빌트의 가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연주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G전자 제공

네이버·카카오, 오늘부터 상시 원격근무 돌입

네이버, 주 5일 또는 주 2일 선택 카카오, 오후 2~5시 집중근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4일부터 본격적인 원격근무(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그동안 임시 조치로 시행하던 재택근무를 회사 공식 제도로 전격 도입하는 것이다. ‘회사를 가야 출근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흐려질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주 5일 내내 원격근무(러타임)하거

나 주 3일 이상 회사로 출근(0타입)하는 두 가지 근무 형태 중 하나를 고르는 커넥티드워크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직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진행 중인 프로젝트 상황 등을 고려해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다. 이번 첫 시행 때는 전체 직원 중 55%가 러타임, 45%가 0타입을 골랐다.

러타임을 선택한 직원들은 집을 포함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나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0타입을 고른 직원들은 4일부터 사무실로 출근한다. 원하는 요

일, 원하는 시간에 주 3회 이상 출근하면 된다. 이들의 식사는 회사가 제공한다.

카카오도 4일부터 상시 원격근무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카카오 쿠루(임직원)들은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울체크인 타임’으로 운영한다. 일종의 집중근무제다. 카카오는 근무제와 별개로 격주 ‘놀금(노는 금요일)’ 제도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금요일을 쉬는 날로 지정해 2주에 한 번은 주 4일만 근무하는 식이다. 선행결 기자

AI로 어르신 건강 챙기는 LG유플러스

‘스마트 실버케어’ 실증 작업

LG유플러스는 인천 남동구, 가천대와 함께 ‘스마트 실버케어’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실증 작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실증은 남동구 보건소, 가천대 연구진과 함께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21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시행된다.

LG유플러스가 올해 개발한 스마트 실버케어는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밴드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수집된 고객 건강 관련 정보를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건강관리 솔루션이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이용자의 협업과 체지방, 수면 시간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낙

상, 배회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알람을 통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운동하면 시니어 매트밴드가 맥박, 호흡 등을 체크해 관리자가 맞춤형 운동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LG유플러스는 세종시와 부산시에 이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이번 실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보안을 거쳐 내년에 상용 서비스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상현 LG유플러스 신사업추진담당(상무)은 “어르신은 물론 방문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배회하는 어르신을 조기 발견하고 실증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송우 기자

중진공, 원전 中企 신속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원전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원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진공은 원자재 가격 상승, 수주 감소 등으로 유통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신성장기반자금 2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는 신규 대출,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정부의 원전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